

# 대한용접학회 용접기술 교육 및 검정체계 Welding Education and Qualification System of Korean Welding Society

## 황 선 효

한밭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국내 용접기술분야는 250,000명 이상의 용접기능사 자격증이 발급될 정도로 큰 기술인력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 자격들이 국내 기업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기술인력 교육·훈련 및 검정체계는 장기간 관에 의해서 운영됨으로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공급자 중심의 교육으로 유도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자격 보유자가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서도 인정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비단 용접기술분야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내 전체 직업교육 및 검정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이다. 자격기본법이 제정되어 민간자격 발급의 길은 열어 놓았으나 실질적으로는 대다수의 공업기술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민간자격 발급이 금지되어 있어 민간자격 활용의 길이 원천봉쇄 되어 있다.

대한용접학회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유럽용접연맹 및 국제용접학회와 동일한 교육 및 검정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용접기술 민간자격들을 발급하고 있으며, 동 자격은 국제적(유럽용접연맹)으로 공인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정부에 의해서는 공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동 자격이 정부공인이 되어야 현행 국가자격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법적 대접을 받게 되고, 그래야 동 자격이 용접관련 개별법들에 의해 활용될 수 있다.

용접기술분야는 산업기술 자격들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 수준으로 준비된 자격이다. 따라서 바로 정부공인이 되더라도 하등의 혼란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다. 정부는 대한용접학회의 민간자격 체계를 시범사업으로 채택하여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타 기술분야로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민간자격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전면에서 나서지 않고 관련 기술 민간자격 운영단체(기업주도)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기술교육 및 자격체계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민간자격체계가 뿌리를 내리면 정부지원 없이 독립체산제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보고서에서는 대한용접학회의 교육 및 검정체계, KS ISO용접관련 규격 제정 및 KWS 자격의 민간자격 정부공인에 대해서, 그리고 KWS 자격의 향후 추진 및 활용 방향에 대해서 기술한다.